

제주항공, 기내식 카페 '여행맛' 2·3호점 오픈

제주항공은 기내식 카페 '여행의 행복을 맛보다'(이하 여행맛) 2, 3호점을 오픈한다. 서울 AK&종대에서 운영했던 '여행맛' 1호점을 7월 28일 끝냈고, 10일 A K플라자 분당점에 2호점, 12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 3호점(사진)을 열고 3개월간 운영한다. 3호점에는 제주항공의 어린이항공안전체험 프로그램 '항공안전체험교실'과 '객실승무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한다.



'착한 기업'으로 성장 중인 CJ제일제당

'뉴 마린보이' 황선우 뛰어난 CJ의 지원 있었다

올해 2월부터 공식 후원사...훈련 전념 도와 스포츠마케팅 내 선수발굴하는 팀 별도 구성 ESG·건강과 안전 등 지속가능경영 실행 강조

고 진심어린 마음을 전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앞으로 황선우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는 선수와 스포츠 종목은 물론 기업도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발판을 다지는 활동"이라고 했다.



CJ제일제당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하며 고객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력과 꿈이 있는 선수를 후원한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실력과 꿈이 있는 선수를 후원하는 '꿈지기' 역할에 나섰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뉴 마린보이'로 떠오른 황선우가 대표적 예다.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3회 경신했다. 특히 불모지로 불리는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황선우의 선전에는 CJ제일제당의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2월부터 공식 후원사를 맡아 국내외 훈련 지원, 전문 코치진 등을 지원하며 선수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회사 측은 "CJ제일제당 스포츠마케팅팀 내에는 선수들의 활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신규 스포츠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를 발굴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며 "황선우 역시 에이전시조차 없을 때 그의 잠재력과 세계무대를 향한 강한 도전정신과 확고한 신념을 눈여겨 본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직접 코치진과 부모님을 접촉해 후원을 결정하게 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황선우의 잠재력은 CJ제일제당의 전폭적 지원과 만나 폭발했다. CJ제일제당이 황선우를 후원한 이후인 5월 자신의 세계주니어 신기록 경신을 기록하며 도쿄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했고,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도 호성적을 낸 것이다. 황선우 역시 올림픽 경기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메인 후원사 CJ제일제당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행

3일 발간한 '202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진정성 있는 실행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올해 전략을 담았으며, 특히 지속가능경영의 지향점인 'Nature to Nature'에 도달하기 위한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대표이사 메시지를 담은 지난해 보고서와 달리 올해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경영진 11명의 메시지를 추가로 담았다. 연구개발과 원료 구매, 생산과 포장에 이르는 전 영역 커뮤니케이션, 인사, 법무 담당 경영진도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건강과 안전' 주제에서는 고객의 건강까지 고려한 'CJ 영양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제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평가하고, 품목별 열량 및 5개 영양소(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의 상한 기준치를 정해 건강 간편식 '더비비고' 등 신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또 소비자 건강을 위한 차세대 식품소재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의 발효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식물성 발효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가 대표 품목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 주제에서는 친환경 성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잡재 폐기물을 저감하고 순환 자원 인증을 통해 총 5577톤의 폐기물을 줄였다. 이는 전년 대비 7.7배 향상된 수치다. 폐기장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1019톤의 플라스틱을 저감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1.6배 개선된 1527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화두"라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협의체를 주축으로 소비자들과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좋아요 121,893개
hwang.sunwoo 저의 추종자인 자유형 100.200M 경기를 마쳤습니다.
첫 올림픽 출전인만큼 부담도 되지만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메인후원사 CJ제일제당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경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코리아 #CJ제일제당 #CJCheiljedang #비비고 #CJFoods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 후원사인 CJ제일제당에 감사의 뜻을 전한 황선우(위 사진)와 CJ제일제당 '202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표지. 황선우 인스타그램,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현대차 "‘로봇공학의 미래’ 만나보세요" 비트라 뮤지엄과 파트너십...부산서 전시



현대자동차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의 파트너십 일환으로 3일부터 10월31일까지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헬로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전을 연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월 디자인 혁신이 일상생활 속 기술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을 함께 탐구하기 위해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그 첫 전시이며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총 6개의 전시실에서 선보이는 200여점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디자인 혁신이 로봇의 역할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현대차 로봇 연구 조직 '로봇틱스랩'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한 의료용 착용로봇 '멕스(MEX)', 영업거점용 서비스 로봇 '달이(DAL-e)' 등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로봇들이 전시된다. 아울러 올해 6월 현대차와 한 식구가 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 '스팟(Spot)'과 '아틀라스(Atlas)'도 전시돼 동시대 가장 앞선 로봇 기술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태권도를 차용해 로봇 동작을 완성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로봇 태권V가 전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인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혁신적인 로봇공학 기술과 현대차가 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를 목표로 모빌리티와 로봇공학 영역에 투자해 일상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가 서울 성수동에 오픈한 팝업스토어 '로티스 아파트먼트'에서 모델들이 수제맥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월드

롯데월드, 팝업스토어 '로티스 아파트먼트' 오픈 향후 캐릭터 IP와 콘텐츠역량 활용 사업 다각화

롯데월드(대표이사 최홍훈)가 캐릭터 IP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 '로티스 아파트먼트'(LOTTY'S APARTMENT)를 오픈했다. 롯데월드의 캐릭터 리브랜딩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70~80년대 아메리칸 카툰을 떠올리게 만드는 디자인의 로티와 캐릭터들이 튀긴 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는 테마로 인기 브랜드와 협업한 100여 개 상품을 갖췄다.

로티가 편안한 웃음으로 돌아오고 휴식을 취하며 맛보는 '와일드 웨이브' 수제맥주, 포근하게 기릴 수 있는 '어프어프' 쿠션커버와 파우치, 각종 문구용품과 모바일 액세서리 등이 있다. 침실&드레스룸, 서재, 부엌 등 공간별 분위기에 맞게 상품을 비치했다. 오픈을 기념해 SNS 이벤트 '로티 APT 인스타그램 방탈출'을 진행한다.

'로티스 아파트먼트' 1호점은 29일까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이어 영등포, 잠실 등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월드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캐릭터 인지도를 확보하고 향후 OS 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으로 다양한 브랜드 협업과 자체 콘텐츠를 통해 IP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7월 실적 선방한 쌍용차...올 뉴 렉스턴 '마스터'로 상승세 이어간다

쌍용차, 3개월 연속 8000대 판매 돌파 렉스턴 스포츠, 칠레·호주서 판매 호조 올 뉴 렉스턴 '마스터' 하반기 실적 기대



쌍용차의 하반기 판매를 이끌 올 뉴 렉스턴 '마스터'는 디자인을 선택의 폭을 넓히고, 4륜구동 시스템인 4TRONIC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끌어올렸다. 사진제공 | 쌍용차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생산라인 1교대 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품성 개선 모델들의 인기로 힘입어 3개월 연속 8000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7월 내수와 수출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8.9% 늘어난 8155대를 판매했다.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7% 감소한 5652대를 기록했지만, 수출은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영국에 이어 칠레와 호주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218% 증가한 2503대를 기록했다.

국내 판매를 이끈 모델은 4월 상품성 개선 모델로 새롭게 선보인 국내 유일의 픽업 트럭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다. 더욱 터프해진 라디에이터그릴과 수직 구성의 LED 포그램프를 통해 더 강인한 디자인으로 거듭나고, 첨단 안전기술과 인포테인먼트 사양까지 추가하면서 높은 인기를 이

어가고 있다. 3.4분기 쌍용차의 판매를 이끌 주력 모델은 3월 선보인 대형 SUV 올 뉴 렉스턴 스포츠 모델 '마스터'다. 프레스티지 모델을 베이스로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 ▲블랙 헤드라잉 ▲플로팅 무드스피커를 기본 적용하고, 블랙 스퀘이드 쉐어링 인테리어를 옵션(50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 프레스티지 모델 구입 고객 중

95% 이상이 선택한 4TRONIC(4륜구동)을 기본 적용해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을 높였다. 또 디지털 스마트 키, 빌트인 공기청정기, 도어 스윙오프 등 최신 선호사양도 추가했다. 판매 가격은 4473만 원이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올 뉴 렉스턴은 기존 럭셔리, 프레스티지, 더 블랙에 이어 마스터 스페셜 모델까지 추가하면서 소비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KGC, 정관장 굿베이스 건강즙 출시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굿베이스가 건강즙 3종(사진)을 내놓았다. '무안에서 자란 단단한 자색양파', '부안에서 자란 달콤한 오디', '제주에서 자란 건강한 적양배추로콜리' 등으로 구성했다. 당해년도에 수확한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해 계절 시즌에만 구매 가능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민경성 KGC인삼공사 건강사업단장은 "원료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가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화종합화학, 수소혁신발전 프로젝트 착수

한화종합화학(대표 박승덕)과 한국서부발전(박형덕 사장)이 국내 최초로 수소혁신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양사는 3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 본사에서 수소혁신 발전사업용화 본격 착수를 위한 '수소혁신 발전 실증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에 50%이상 수소를 혼소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게 된다.